

3. 시장 동향 및 전략(하이카컴퍼니)

하이카컴퍼니가 속한 **토큰증권(STO) 및 디지털금융 시장**은 전세계적으로 이제 막 태동하는 신흥 분야입니다. **시장 동향**을 보면,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한 이후 암호화폐(가상자산) 시장은 2010년대 후반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, 해당 자산들은 법적 투자증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통 금융시장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증권성을 지닌 디지털 토큰 개념인 **STO(Security Token Offering)**가 대두되면서,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**주식·채권·부동산 등의 실물/금융자산을 토큰화하여 거래**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. 미국, 싱가포르, 독일 등에서 일부 STO 거래소(예: Overstock의 tZERO, 독일 Börse의 탄탈레 등)가 등장했고, 전통 금융기관들도 이 분야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.

국내 동향: 한국에서는 금융당국이 2023년 2월 “토큰증권 발행·유통 규율체계”를 발표하여, 기존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 증권형 토큰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**증권사들이 STO를 발행하고 거래 중개**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한국거래소도 2024년 하반기 목표로 **장외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**을 준비하고 있으며, 코스콤(금융 IT 기관)과 일부 증권사 컨소시엄이 기술개발을 진행 중입니다. 이러한 제도 준비는 하이카컴퍼니 같은 스타트업에게는 **시장 개화 신호**로 받아들여집니다. 이제까지는 규제가 모호해 제한적이던 STO 사업을,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 초기에는 **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사 중심**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, 핀테크 스타트업은 이들과 경쟁이 아닌 **협업 또는 틈새전략**이 필요합니다.

하이카컴퍼니의 시장전략: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카컴퍼니는 “**니치+협업**”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. 즉, 대형 증권사가 당장 시도하지 않을 만한 **틈새 자산** (예: 신재생에너지 발전소, 특정 인프라 자산 등)을 주목하고, 이를 공기업이나 해당 산업 주체들과 손잡고 토큰화함으로써 시장 초기 레퍼런스를 선점하려는 것입니다. 이는 **ESG 및 정책연계 니즈**와 맞물려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호응을 얻기 좋습니다. 실제로 한국동서발전과 STO를 추진한 사례가 이러한 전략의 결과입니다. 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**국민 참여형 투자 모델**을 원하고, 하이카컴퍼니는 이를 토큰증권으로 구현하여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발전소 지분에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게끔 설계했습니다. 이런 프로젝트는 기존

금융사가 주도하기엔 영역 지식이 부족하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나, 스타트업의 기민함과 집중력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.

또한 **협업** 측면에서, 하이카컴퍼니는 증권사/은행 등 제도권과 적극 제휴를 모색합니다. KB 증권과의 협약이 대표적 예인데, 이는 하이카컴퍼니의 플랫폼을 통해 발행되는 토큰증권이 **기존 증권사 인프라와도 연계**될 수 있도록 포석을 깔 것입니다. 향후 토큰증권 시장이 커지면, 스타트업 단독 플랫폼보다는 **대형 플레이어와 연결된 플랫폼**이 신뢰나 유동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하이카컴퍼니는 자체 DEX(분산거래소)같은 방식을 고집하기보다, **중앙화 금융기관과 블록체인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방식**을 택하고 있습니다. 예컨대 원렛에서 발행한 토큰이 추후 한국거래소 STO 플랫폼이나 증권사 OTC 마켓에서도 거래될 수 있게 표준화하는 방향입니다.

경쟁 구도: 국내 STO/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중에서는 **레벨스(람다 256)**, **블로코**, **증권플러스 비상장(두나무 계열)** 등이 간접적으로 경쟁 또는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.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인 그라운드 X도 STO 솔루션을 제공하려 하고, 코인플러그 등 블록체인 원천기술사는 DID 나 NFT 등 인접 분야에서 활동합니다. 하이카컴퍼니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, **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와 공기업 파트너 확보** 등의 성과로 돋보이는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. 경쟁사 대비 강점은 **AI 레그테크(RegTech)** 솔루션을 갖췄다는 점입니다. 증권신고서 스마트 에디터는 한국 시장에서 독특한 서비스이며, 이는 하이카컴퍼니의 **원스톱 발행 지원 역량**을 높여줍니다. 즉, 경쟁사는 단순히 토큰 발행 기술만 제공할 때, 하이카컴퍼니는 발행 준비부터 사후 공시까지 돕는 **풀패키지 서비스**를 내놓아 **서비스 차별화**를 시도하는 것입니다.

시장 규모 및 기회: 토큰증권 시장은 초기인 만큼 아직 작지만, 잠재력은 큼니다. 정부도 STO를 활용하여 **부동산 유동화, 중소기업 자금조달** 등 다양한 영역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예컨대, 향후에는 스타트업 비상장 주식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여 쉽게 거래하거나,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STO로 편당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하이카컴퍼니는 이 중에서 우선 **인프라/에너지 STO**에 집중하고 있지만, 향후 성공사례가 축적되면 **다른 실물자산** (지식재산권 로열티, 구독매출 유동화 등)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. 이는 회사 전략에서도 언급된 **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**에 해당합니다. 우선 하나

분야에서 성과를 낸 후, 플랫폼 기술은 공통이므로 새로운 자산군에도 응용하겠다는 것입니다.

해외 진출 전략: 국내 시장 대비 글로벌 STO 시장은 규제는 더 앞서나, 표준이 아직 없고 파편화되어 있어 **한국 기업의 도전 여지**가 있습니다. 하이카컴퍼니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에 거점을 만들려 하는데, 싱가포르는 금융허브이자 암호화폐 친화적 규제, 두바이는 아랍권 새로운 금융 특구(DIFC)가 있는 곳입니다. 이 두 곳 모두 **글로벌 자본 유치**에 용이하며, 로컬 파트너와 합작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예컨대, 하이카컴퍼니는 싱가포르에서 현지 에너지 기업이나 펀드와 협력해 동남아 발전소 STO 를 한다면, 두바이에서 MENA 지역 부동산 STO 를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습니다. 국내에서 다진 기술력을 수출하는 동시에, **외국 자본을 한국 플랫폼에 연결**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해외 전략의 핵심입니다. 이 경우 글로벌 법률 이슈나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, 현재 내재화한 AI 문서툴 등이 언어/규정 버전에 따라 수정되어야 합니다. 하이카컴퍼니는 대표의 개인 네트워크(해외 근무 경험)를 최대한 활용해 **현지 규제자 및 기업들과 교류 채널**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.

리스크 및 대응: 시장이 초기이니 만큼, **규제 불확실성**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. 만약 정책이 바뀌거나, 토큰증권 사고(해킹, 사기 등)가 발생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하이카컴퍼니는 **보수적인 보안 정책과 단계적 접근**을 취하고 있습니다.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것도 당국의 관리 하에 테스트를 마쳤다는 뜻이고, 향후 정식 출시 시에도 금융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. 또한 대국민 이벤트(일반인 공모 STO)는 처음부터 크게 벌이지 않고, **기관 대상 사모 방식** 등으로 안전하게 사례를 쌓은 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혀갈 것입니다. 이는 신뢰 구축에 중요합니다.

또 다른 리스크는 **수익모델 가시화**입니다. 아직 시장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에, 하이카컴퍼니가 언제부터 영업수익을 낼지 불투명합니다. 이에 대해 회사는 **B2B 프로젝트성 수익**을 단기 확보 전략으로 삼습니다. 예를 들어, 한국동서발전과 공동사업 시 컨설팅/개발비 명목으로 수익을 얻고, 스마트 에디터 솔루션을 증권사들에게 연간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하는 것입니다. 이런 **다각적 수익원**을 마련해 두면, 플랫폼 수수료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정리하면, 하이카컴퍼니의 전략은 “**샌드박스→동맹→확장**”으로 요약됩니다. 샌드박스를 통해 제도권 진입 토대를 확보했고, 공기업·금융사와 동맹을 맺어 초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, 이를 성공시킨 후 해외와 타분야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.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, 하이카컴퍼니는 **퍼스트 무버로서 모범 사례**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 ESG, 혁신금융 등 **국가 어젠다**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원도 최대한 끌어낼 것입니다. 이러한 전략적 행보가 이어진다면, 하이카컴퍼니는 향후 국내를 대표하는 **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 기업**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